

신문사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ess and the Health Status of Newspaper Employees

김진희*

I. 서론

현대사회가 점차 전문화, 다양화해감에 따라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개인들은 예전과는 다른 사회적·문화적·경제적·심리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 생활양식 및 인간관계의 변화는 인간의 건강수준과 제반 보건문제들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합리성에 기초한 오늘날의 조직사회에서 인간은 더욱 많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다양한 사건들과 과중한 업무, 역할갈등 등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다(Paykel 등, 1969; Thoits, 1983).

Dodge와 Martin(1970)은 오늘날의 질병 즉, 만성 질환은 질병원인론적으로 볼 때 과도한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사회적 구조와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문제는 크게 신체장해와 정신장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Copper 등, 1978). 신체 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고혈압(Mattews 등, 1987), 관상동맥 심장질환(Jenkins, 1971; House, 1974; Depue, 1986), 제양, 당뇨병(Caplan, 1980)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유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스트레스가 피부 및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House 등,

1979). 한편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신경질환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Kornhauser, 1965; Brown 등, 1968).

Jemmott과 Sarason(1984) 또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비해 나쁜 건강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근로자의 직업성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연구(Neighbors, 1986), 생산직 근로자들의 직업성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Evans 등, 1987), 사무직 근로자와 행정직 근로자간의 직업성 스트레스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Lam, 1985), 스트레스가 인종 및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Kessler 등, 1986) 등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건강문제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직업병 등 신체적 증상들을 살펴보는 데 치중되어 왔으며 분석내용도 소음, 분진, 고열, 유기용제 등과 같은 물리,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연구에 집중되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차봉석 등, 1988).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측면 특히 직업성 스트레스와 건강장해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연구는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드문 실정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업무상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 신문사 근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로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상태를 측정해 보고 이 둘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신문사 근로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한 이유는 신문사 근로자들이 매일매일 신문을 시간에 맞춰 제작하고 조판·인쇄·배부 등을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성 아래서 일하기 때문에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문사에는 기자직, 사무직, 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해 직종간 스트레스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직장 근로자들의 직종에 따른 건강수준 이해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연구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 측면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직종별(기자직·사무직·공무직)로 스트레스 지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 둘째, 일반적 특성 및 직종별(기자직·사무직·공무직)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셋째, 스트레스 지각 수준 및 일반적 특성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란 말은 라틴어의 Stringer를 어원으로 하며 '팽팽히 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Ivanchevich 등, 1980).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그 뒤 14세기에는 고난·곤경·역경 또는 고통의 의미로 사용돼 왔다. 스트레스는 또 17세기 말에는 Hooke에 의해 물리학에서도 사용되었다. 오늘날 스트레스는 물체나 인간에게 작용하는 힘·압력·강한 영향력 또는 어떤 체계에 작용하는 외적인 힘으로 개념화되고 있다(이정훈, 1993).

스트레스란 개념이 체계화된 것은 Selye에 의해서이다. 그는 스트레스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비특이적 반응으로 정의하면서 스트레스를 일반 적응 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으로 설명하였다.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인체를 적응 또는 대응시키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적응을, 그리고 그로 인해 일반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증후군이라고 표현하였다(Selye, 1956). Selye는 일반 적응 증후군을 경계단계(alarm stage),

저항단계(resistance stage) 그리고 고갈단계(exhaustion stage)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경계단계는 외부적 자극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이며, 저항단계는 유기체가 스트레스에 최대한 적응해가는 상태를 말한다. 경계단계에서는 부신피질 및 부신수질에서 호르몬(카테콜라민과 코티졸)을 분비하지만 저항단계에서는 호르몬을 피질이나 수질에 쌓아 놓는다. 고갈단계에서는 유기체의 적응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는 때를 말하는데 이때 만성적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Spielberger는 사건과 개인간의 차등성에 주목하여 스트레스를 개념화하였다. 그는 사건이 육체적 자아(physical self)나 현상학적 자아(phenomenological self)를 위협하게 될 때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 육체적 자아에 대한 위협을 육체적 위협(physical threat), 현상학적 자아에 대한 위협을 자아 위협(ego threat)이라고 불렀다. 그는 서로 다른 퍼스넬리티(personality)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육체적 위협에 대해선 보통 일률적으로 반응하게 되지만, 자아 위협에 처하면 반응이 퍼스넬리티의 특성에 의해 달리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불안증세가 심한 사람은 자아 위협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게 되지만, 불안증세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아 위협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Spielberger, 1972).

항상성(homeostasis)모델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인 McGrath는 환경적 요구와 유기체의 반응능력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McGrath, 1979).

스트레스에 대한 포용력 있는 개념 정의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Hobfall(1988)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Hobfall은 지금까지의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는 분석도식에서 단편적이고 확일적으로 스트레스 과정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적 맥락이나 퍼스넬리티 특성을 간과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스트레스 개념정의가 동어반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념 재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가 제시한 모델에 의하면,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의되는 스트레스는 첫째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 손실에 대한 위협, 둘째 자원의 손실, 셋째 자원의 손실로 인한 새로운 자원의 보충 부족 등으로 인해 생긴다. Hobfall은 이 모델을

자원유지 모델(model of conservation of resources)로 불렸으며, 자원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원을 사물이나 조건, 능력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통제력, 자기존중심,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자원의 보기로 설명하였다.

Hobfall은 스트레스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수로서 사회적 자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Hobfall의 이러한 시도는 스트레스의 과정과 구조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스트레스 상황 아래서 사회적 자원이 어떻게 기능하고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해 준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모델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인간-환경 적합 모델(person-environment fitness model)과 직무 요구-통제 모델(job demand-control model)이 그것이다(Baker, 1985).

Baker는 인간-환경 적합 모델에서 스트레스를 사람과 환경의 부조화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한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과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인간의 능력 사이에, 다시 말해서 개인의 동기(motives)와 직업환경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긴장이 생기고 이것이 스트레스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때 동기는 소득, 참여, 그리고 자기효용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며 요구는 직무 하중과 직무 복잡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이론도 주관적인 판단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요소가 스트레스 요인인지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직무 요구-통제 모델은 스트레스 요인 규명에서 좀더 발전한 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긴장은 직무 조건의 요구와 스트레스 완완요인, 특히 의사결정시의 자유와 결합된 효과로부터 나타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직무 요구는 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스트레스 요소를 포함한다. 한편 직무 결정 범위는 기술 사용에 대한 통제, 시간 배분, 조직적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 이론에서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직무 요구는 많으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적은 경우에 높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직무에서는 의사결정권을 높여주는 것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에

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의 불투명한 감정적인 경험 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결정된 여러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Holme과 Rahe(1967)가 고안한 사회재적응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 Frank와 Zyzanski(1988)가 고안한 간이 스트레스 측정도구(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BEPSI)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적응척도(SRRS)를 개량하여 만든 최근 스트레스 포괄적 측정(Global Assessment Recent Stress, GARS) 척도(Linn, 1985)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들의 여러 스트레스 원인을 고려한 전반적인 최근의 스트레스 측정에 유용하며 또한 응답자가 응답하기 쉬워 수용성이 높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Linn, 1985)

2. 스트레스와 건강

1960년대 및 1970년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서, 스트레스를 수반하게 되는 특정 사건들(events)에 주목하였다. 특정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며, 이는 정신건강 및 육체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즉 특정 사건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것이다(Holmer 등, 1967; Pakel 등, 1969). 특정 사건이란 일상적 사건이 아닌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비규범적이고 조정할 수 없는 생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사건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인자인 만성적 긴장(chronic strain)이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무관한 것이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인자들로서는 한 개인의 일상적 행위를 위협하는 사건들(배우자의 사망, 실직, 사고 등)과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겪는 어려움, 고난(부부갈등, 경제적 빈곤, 역할갈등) 등이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유발 인자들로부터 발생한 만성적 긴장이 사회심리적·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Fairbank 등, 1979; Avison 등, 1988; Turner 등, 1988). 이러한 스트레스-질병모델(stress-disease model)은 그 뒤 많은

경험적 조사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사건들이 육체적·정신적 질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스트레스 연구에 공헌을 하였다.

건강상태조사는 건강에 대한 정보수집 기회를 갖는 동시에 건강상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각 증상 및 생활배경과 일상생활 행동의 특성까지도 파악하는 동시에 건강진단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윤신, 1979).

건강상태조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종래의 코넬의학지수(Cornell Medical Index, CMI)가 있으며, 이의 각종 개량형이 임상 및 건강진단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일반건강설문지(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 동경대건강지수(Todai Health Index, THI), 듀데-유엔시 건강도구(Dude-UNC Health Profile, DUHP)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주호소 및 자각증상을 척도화·표준화해 수량적 처리와 평가가 가능하고, 집단 특성의 관찰과 분석에도 유용한 동경대 건강지수(THI)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1996년 4월 15일부터 1996년 5월 11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하는 4개 신문사의 근로자(기자직, 사무직, 공무직)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기자직은 편집국, 출판국 등에서 취재, 편집, 교열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무직은 관리국, 판매국, 광고국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인사, 총무 등 일반적인 회사운영과 관리에 종사하거나, 신문·잡지의 판매, 광고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공무직은 신문의 제작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언론사내 육체노동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수는 207명이었고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다고 간주된 10명을 제외한 총 1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는 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근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최근 스트레스 포괄적 측정(Global Assessment Recent Stress, GARS) 도구(Linn, 1985)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경우를 0점, 극도로 심한 경우를 9점으로 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Linn(1985)의 조사에서 재조사법(test-retest)의 신뢰도 계수가 0.69-0.92로 비교적 높았고 측정도구와 각 문항간의 상관계수(item-total correlation)가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짐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8개 항목의 점수를 더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은 직업, 대인관계1, 대인관계2, 질병, 경제, 비일상적 사건, 생활변화, 전반적 느낌의 8개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항목간의 상관계수 값은 0.16에서 0.70이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 일치도 Cronbachdml α 값은 0.81이었다.

2) 건강상태

1977년 일본 동경대학의 Aoki 등이 개발한 동경대 건강지수(Todai Health Index, THI)의 12항목 130 문항(Aoki, 1977) 중 전문가(가정의학과 전문의 3명, 내과 전문의 4명, 정신과 전문의 1명)에게 검증을 받은 7항목 28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마다 '예', '가끔', '아니요'로 구분하여 각각 1점, 2점, 3점씩을 준 뒤 7개 항목별로 개인 점수를 합산하였고, 전반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건강지수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 이 경우 THI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C/SAS(SAS Institute Inc., 1987)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직종별 스트레스 정도와 직종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하였고, 스트레스 정도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스트레스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명목변수인 경우 가변수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근무하는 신문사 명, 직종, 종교, 교육정도, 결혼상태, 결근유무, 근무년수, 결근일수 등이 있다.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 대한 분포와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을 성별분포로 알아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167(84.8%), 30명(15.2%)이었다. 연령별로는 20-29세 집단과 30-39세, 40-49세, 50-59세 집단이 각각 47명(23.9%), 117명(59.4%), 27명(13.7%), 6명(3.0%)이었으며 직종별은 기자직이 79명(40.1%), 사무직이 54명(27.4%), 공무직이 64명(32.5%)이었다. 종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77명(39.1%)이었고 무교인 사람이 120(60.9%)으로 반수가 넘었다. 교육수준에서는 52명(26.4%)이 고졸 이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인 129명(65.5%)이 대학졸업자였다. 대학원 이상 학력자는 전체의 8.1%인 16명이었다. 결혼상태에 따라 나뉘보면 응답자의 70.4%인 138명이 기혼이었고 29.6%인 58명이 미혼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근무년수는 7.3(±5.30)년 이었고 응답자 중 16.8%인 33명이 최근 6개월간 결근한 경험이 있었으며 총 결근일 수를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눈 평균 결근일 수는 0.5일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7)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	167(84.8)
	여	30(15.2)
연령	20 - 29	47(23.9)
	30 - 39	117(59.4)
	40 - 49	27(13.7)
	50 - 59	6(3.0)
신문사	'가'	42(21.3)
	'나'	45(22.8)
	'다'	82(41.6)
	'라'	28(14.2)
직종	기자직	79(40.1)
	사무직	54(27.4)
	공무직	64(32.5)
종교	있음	77(39.1)
	없음	120(60.9)
교육정도	고졸	52(26.4)
	대졸	129(65.5)
	대학원 이상	16(8.1)
결혼상태	미혼	58(29.4)
	기혼	138(70.4)
결근유무	유	33(16.8)
	무	164(83.2)
근무년수		7.3±5.30
결근일수		0.5±1.75

결근일 수는 전 직종에 걸쳐 비슷하게 나타났다.

2. 직종별 스트레스 수준

1) 직종별 스트레스 수준

〈표 2〉는 연구 대상자의 직종별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 본 것이다. 직종별 스트레스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기자직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공무직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2〉 직종별 스트레스 수준

직종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기자직	10.9	3.0	3.48	0.03
사무직	9.8	3.5		
공무직	9.6	3.4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변수/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또는 t값	p값	
성별					
남	10.1	3.4	0.08	0.78	
여	10.3	3.2			
연령			1.09	0.36	
	20 - 29	10.5			3.0
	30 - 39	10.3			3.3
	40 - 49	9.3			3.5
신문사			0.60	0.62	
	'가'	10.6			3.5
	'나'	9.8			3.1
	'다'	10.3			3.2
종교			1.23	0.30	
	'라'	9.8			3.9
	기독교	9.5			3.2
	천주교	11.3			3.5
교육정도			1.91	0.15	
	불교	10.0			3.9
	무교 및 기타	10.3			3.2
결혼상태			0.91	0.34	
	고졸	9.4			3.0
	대졸	10.4			3.5
결근유무			2.45	0.12	
	대학원 이상	10.9			3.2
	미혼	10.5			3.1
근무년수			4.42	0.01	
	기혼	10.0			3.5
	유	11.0			3.5
결근일수			3.48	0.03	
	무	10.0			3.3
	5년 미만	10.8			3.0
결근일수			4.42	0.01	
	5 - 8년 미만	10.7			3.3
결근일수			3.48	0.03	
	8년 이상	9.4			3.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근무년수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성별, 연령, 근무 신문사, 종교, 교육정도, 결혼상태, 결혼유무는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직종별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건강상태 측정 항목인 호흡기계, 안·피부계, 소화기계, 구강·항문계, 우울성향, 정신안정성, 일반상태 등 7개 항목 28개 문항의 점수를 항목별로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또 28문항 전체를 합산한 건강지수라는 새 변수를 만들어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하였다.

1) 직종별 건강상태

〈표 4〉는 연구 대상자의 직종별 건강상태를 분석한 것이다. 소화기계와 우울성향에서는 직종별로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호흡기계, 안·피부계, 구강·항문계, 정신안정성, 일반상태, 건강지수에서는 직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종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ukey검정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계에서는 사무직과 공무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무직이 더 건강하였다. 기자직과 사무직, 기자직과 공무직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성향에서는 기자직과 공무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자직이 더 우울성향이 높았다. 사무직과 기자직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표 5〉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를 분석한 것으로 안·피부계와 구강·항문계에서는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계에서는 성별, 결혼상태,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가, 기혼자가,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성향에서는 성별, 결혼상태, 결혼유무, 근무년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가, 기혼자가,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근무년수가 길수록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안정성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가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표 4〉 직종별 건강상태

항목/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호흡기계				
기자직	8.5	2.2	0.81	0.45
사무직	9.0	1.9		
공무직	8.7	1.7		
안·피부계				
기자직	8.2	1.6	0.04	0.96
사무직	8.3	1.4		
공무직	8.2	1.8		
소화기계				
기자직	8.4	1.9		
사무직	9.0	2.1	3.00	0.05
공무직	8.0	2.2		
구강·항문계				
기자직	9.6	1.7		
사무직	9.8	1.6	1.22	0.30
공무직	9.3	1.9		
우울성향				
기자직	7.6	1.8		
사무직	7.9	2.0	2.95	0.05
공무직	8.4	1.9		
정신안정성				
기자직	6.9	1.7		
사무직	7.4	1.9	1.47	0.70
공무직	7.1	1.7		
일반상태				
기자직	7.6	2.0		
사무직	8.1	1.8	1.45	0.24
공무직	7.4	2.2		
건강상태				
기자직	13.1	2.1	1.42	0.24
사무직	13.7	2.1		
공무직	13.1	2.4		

반 상태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자가,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안·피부계, 소화기계, 우울성향, 구강·항문계, 정신안정성, 일반상태를 총괄하여 합산한 건강지수에서는 결혼상태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혼자가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항목/유의한 변수/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또는 t값	p값
안·피부계				
결혼유무				
유	7.5	2.0	2.57	0.01
무	8.3	1.6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계속)

항목/유의한 변수 / 구분	평	균	표준편차	F값 또는 t값	p값
소화기계					
성 별					
남	8.6	2.1		2.51	0.01
여	7.6	2.1			
결혼상태					
미혼	7.9	2.2		2.24	0.03
기혼	8.7	2.0			
결근유무					
유	7.5	1.9		3.02	0.00
무	8.6	2.1			
구강·항문계					
결근유무					
유	8.7	2.2		3.20	0.00
무	9.8	1.6			
우울성향					
성 별					
남	8.1	1.9		2.83	0.01
여	7.1	1.7			
결혼상태					
미혼	7.4	1.8		2.88	0.00
기혼	8.2	2.0			
결근유무					
유	7.3	1.6		2.10	0.04
무	8.1	2.0			
근무년수					
5년 미만	7.4	1.7		5.28	0.01
5 - 8년 미만	8.2	2.1			
8년 이상	8.3	1.9			
정신안정성					
성 별					
남	7.2	1.8		2.84	0.01
여	6.2	1.4			
일반상태					
성 별					
남	7.9	2.0		3.40	0.00
여	6.5	1.9			
연 령					
20 - 29	6.8	1.8		4.40	0.01
30 - 39	7.9	2.0			
40 - 49	8.0	2.4			
50 - 59	8.5	1.4			
결혼상태					
미혼	7.2	2.0		2.29	0.02
기혼	7.9	2.0			
결근유무					
유	6.6	1.8		3.47	0.00
무	7.9	2.0			
건강지수					
결혼상태					
미혼	13.3	2.2		2.29	0.02
기혼	14.1	2.3			

4.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상태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호흡기계

호흡기계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스트레스요인이 증가할수록 건강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일반적 특성별로 호흡기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연령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50-59세인 응답자가 30-39세의 응답자보다 건강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성별, 직종, 결근유무, 근무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 채택된 독립변수는 호흡기계 건강상태 수준을 11.9% 설명할 수 있었다.

2) 안·피부계

안·피부계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할수록 건강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일반적 특성별로 안·피부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결근유무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결근의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건강하였다. 성별, 연령, 직종, 근무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 채택된 독립변수는 안·피부계 건강상태 수준을 20.8% 설명할 수 있었다.

3) 소화기계

소화기계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할수록 건강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일반적 특성별로 소화기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직종과 결근유무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직종에서는 공무원이 기자직보다 건강하지 않았다. 결근유무에서는 결근의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건강하였다. 성별, 연령, 근무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 채택된 독립변수는 소화기계 건강상태 수준을 27.7% 설명할 수 있었다.

4) 구강·항문계

구강·항문계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할수록 건강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일반적 특성별로 구강·항문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직종과 결혼유무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직종에서는 공무원이 기자직보다 건강하지 않았다. 결혼 유무에서는 결혼의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건강하였다. 연령, 성별, 근무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 채택된 독립변수는 구강·항문계 건강상태 수준을 18.9% 설명할 수 있었다.

5) 우울성향

우울성향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즉,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할수록 건강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일반적 특성별로 우울성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별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울성향이 높았다. 연령, 직종, 결혼유무, 근무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 채택된 독립변수는 우울성향을 21.4% 설명할 수 있었다.

6) 정신안정성

정신안정성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할수록 건강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일반적 특성별로 정신안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별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남자보다 여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연령, 직종, 결혼유무, 근무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 채택된 독립변수는 정신안정성을 20.4% 설명할 수 있었다.

7) 일반상태

일반상태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할수록 건강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일반적 특성별로 일반상태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결혼유무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성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일반적 상태에서 더 건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에서는 20-29세인 응답자가 연령이 30-39세인 응답자보다 건강하지 않았다. 결혼유무에서는 결혼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건강하였다. 직종, 근무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 채택된 독립변수는 일반적 상태에 대하여 29.7% 설명할 수 있었다.

8) 건강지수

건강지수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표 6> 건강상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항목	유의한 변수	회귀계수	t값	p값	R ² 값
호흡기계	스트레스	-0.137	-3.18	0.00	0.1188
	연령(50-59)	3.016	2.62	0.01	
안·피부계	스트레스	-0.196	-5.91	0.00	0.2075
	결혼유무*	0.610	2.07	0.04	
소화기계	스트레스	-0.260	-6.44	0.00	0.2773
	직종(공무직)	-0.827	-2.44	0.02	
	결혼유무*	0.799	2.23	0.03	
구강·항문계	스트레스	-0.166	-4.59	0.00	0.1888
	직종(공무직)	-0.721	-2.37	0.02	
	결혼유무*	0.827	2.58	0.01	
우울성향	스트레스	-0.202	-5.20	0.00	0.2140
	성별**	-0.957	-2.46	0.02	
정신안정성	스트레스	-0.995	-5.33	0.00	0.2037
	성별**	-1.107	-3.01	0.00	
일반상태	스트레스	-0.246	-6.31	0.00	0.2969
	연령(20-29)	-0.904	-2.44	0.02	
	성별**	-0.787	-2.01	0.05	
건강상태	결혼유무*	0.858	2.48	0.01	0.3787
	스트레스	-0.350	-8.67	0.00	
	결혼유무*	1.140	3.18	0.00	

* 결혼유무 : 0. 결혼경험 있음 1. 결혼경험 없음

** 성별 : 0. 남 1. 여

게 영향을 미쳤으며 즉,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할수록 건강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별로 건강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결근유무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결근의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건강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성별, 연령, 직종, 근무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 채택된 독립변수는 건강지수를 37.9% 설명할 수 있었다.

V. 고 찰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측면 특히 직업성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신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본 것으로, 연구 결과 그 동안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직종별 스트레스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직종별 건강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은 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건강상태가 단순히 직종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 즉 성별, 연령, 결혼상태, 근무년수, 결근유무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am(1987)의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직장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간의 갈등 및 긴장이 원인이 된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Ilfeld, 1987).

연령에서는 50-59세인 응답자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모든 증상의 점수가 높아진다는 Ilfeld(1987)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만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각 증상의 점수가 높았다는 차봉석 등(1988)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50-59세 응답자의 수가 적어 이것이 연령에 따른 특성인지 응답자들의 특성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자가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증상에서 기혼자군이 미혼자나 이혼자군에 비해 건강하다는 Ilfeld(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혼은 배우자로 하여금 정서적인 도움이나 신뢰감을 주어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었다(Gove 등, 1973; Kessler 등,

1981; Ross 등, 1989; Sherbourne 등, 1990).

근무년수에서는 근무년수가 길수록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년수가 짧은 군에서 여러 증상의 점수가 높았다는 차봉석 등(1988)의 연구와 일치한다.

결근유무에서는 결근의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있는 응답자 보다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자직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자직이 사무직이나 공무직에 비하여 일의 자율성과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시간적 긴박성과 책임성이 의사결정권이 가져다주는 장점을 능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 산업구조나 근로여건을 감안해 보면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불만과 정서적 스트레스가 많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분석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직무 하중과 직무 자율성의 측면에서 이를 파악하려고 한다. 즉 직장 내에서의 직무에 대한 통제가 적고, 직무의 능동적 활동성이 보장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항목에서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차봉석 등, 1989)

Magolis 등(1974)은 일에 대한 성취동기와 직무만족감을 중요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 성취동기는 정책 결정에의 참여 유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 내어 성취동기와 일에 대한 자율성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Baker(1985)는 직무 요구-통제(job demand-control) 모델에서 의사결정권을 높여주는 것이 직업성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Richard 등(1979)은 노동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 작업량이 너무 많거나 적을 때, 자신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때 직업성 스트레스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일에 대한 자율성 부여, 동기부여, 의사결정권 부여, 정책결정 참여, 분명한 노동 목적 부여, 비통제적·창조적 업무수행은 직장인들의 직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이는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Cooper 등, 1983).

따라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자직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은 이들에게 부과되는 일의 하중이 더욱 높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직업성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변수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여러 각도에서 각 요인들간 상호보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즉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위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인 직업성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분석, 작업환경의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의 특성, 직업적 특성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직무 외적인 측면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건, 자기존중심과 자신력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로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종별 비교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과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계를 건강진단 결과와 연계시켜 스트레스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이환여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스트레스가 직업병 이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신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직종별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4개 신문사 207명이었고 이 중 190명(기자직 79명, 사무직 54명, 공무직 6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직종간 스트레스 수준은 기자직의 스트레스가 정도가 가장 높았고 공무직이 가장 낮았으며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2. 직종별 건강상태에서 공무직이 사무직에 비해 소화기계에 문제가 더 있었고 우울성향에서는 기자직이 더 문제가 있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에서는 소화기계에서 남자, 기혼자,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건강하였다. 안·피부계와 구강·항문계에서는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건강하였다. 우울성향에서는 남자, 기혼자,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근무년수가 긴 근로자가 우울성향을 보이지 않았다. 정신안정성에서는 남자가 더 안정성이 있었다. 일반 상태에서는 남자, 고연령, 기혼자,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

이 더 건강하였다. 건강지수에서는 기혼자가 더 건강하였다.

4. 호흡기계, 안·피부계, 소화기계, 구강·항문계, 우울성향, 정신안정성, 일반상태, 건강지수에 대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5. 일반적 특성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호흡기계에서는 연령, 안·피부계에서는 결혼유무, 소화기계와 구강·항문계에서는 직종과 결혼유무, 우울성향과 정신안정성에서는 성별, 일반상태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유무와 근무년수, 건강지수에서는 결혼유무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참 고 문 헌

- 고경봉 (1988). 정신신체장애환자들의 스트레스 지각. 신경정신의학, 27(3), 514-521.
- 고용린, 박항배 (1981). 한국인에 적용되고 있는 CMI 건강조사표의 신뢰성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의학 협회지, 23(1), 55-73.
- 김영철, 정향균, 이시형 (1989). 일반성인에서의 생활 스트레스가 정신증상 및 신체에 미치는 연구. 신경정신의학, 28, 282-291.
- 김윤신, 고용린 (1989). Today Health Index(THI) 건강조사표의 분석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의통계학회지, 14(1), 31-38.
- 김윤신,鈴木廣亨, 김정만 (1979). 질문지 건강조사표에 관한-THI 건강조사표의 실용화. 한국의 산업의학, 18(1), 18-28.
- 김정자, 김정애 (1994). 기본간호학. 현문사.
- 박종한 (1980). 산업장 근로자의 정신건강도 측정. 보건의학회지, 26-33.
- 신의철, 맹광호 (1991). 우리나라 여성 주요 제조업 근로자들의 교대작업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예방의학회지, 24(3), 279-286.
- 윤재찬, 이종진, 김건순 등 (1989). 가정의학과 등록 가구에 대한 Cornell Medical Index의 적용. 가정의학회지, 10(3), 20-25.
- 이영수 (1990). 일부 산업장 근로자들에 있어서 스트레스 지각정도과 건강습관과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23(1), 33-42.
- 이정덕, 최은경 (1994).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에 관

- 한 연구. 동국논총 인문사회과학편, 33, 321-343.
- 이정훈 (1993). 산업인력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의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평가. 한국생산성본부.
- 이평숙 (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 양 측정 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 장세진, 차봉석, 박종구 등 (1994). 스트레스 측정도 구의 표준화 방안. 원주의대논문집, 7(1), 21-38.
- 장세진 (1996). 스트레스 연구의 의료사회학적 접근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30 (봄호), 125-149.
- 차봉석, 박종구, 이명근 등 (1988). 일부 제조업 근로 자들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예방의 학회지, 21(2), 365-373.
- 차봉석, 장세진, 이명근 등 (1989). 산업장 근로자들 의 직업성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예 방의학회지, 22(1), 90-101.
- 차봉석, 장세진, 박종구 (1992).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25(4), 429-447.
- 최정애 (1982). 일부산업장 근로자이 간이 정신질환 검사결과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15, 219-228.
- Abramson J.H. (1966). The Cornell Medical Index as an Epidemiological Tool. Am J Pub Health, 56, 287-298.
- Aoki S., Suzuki S., Sanai H. (1977). A new trial of making health and personality inventory, THPI. School of Health Science University of Tokyo.
- Avison W.R., Turner R.J. (1988). Stressful life event and Depressive symptom : Disaggregating the effects of acute stressors and chronic strains. J Heal Soc Behav, 29, 253-264.
- Baker D.B. (1985). The study of stress at work. Public Health, 6, 367-381.
- Brown G.W., Birley J. (1968). Crisis and life change and the onset of schizophrenia. J Heal Soc Benav, 9, 203-214.
- Caplan R.D. (1980). Job demands and worker health : main effects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Michigan Institute for Research.
- Copper C.L., Copper R.D. (1983). Occupational stress among international interpreters. J Occup Med, 25, 889-895.
- Copper C.L., Payne R. (1978). Stress at Work. New York.
- Depue R.A., Monroe S.M. (1986).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human disorder in life stress research : The problem of chronic disturbance. Psychol Bull, 99, 36-51.
- Dodge D., Martin W. (1970). Social Stress and Chronic Illness. Univ of Notre Dame Inc..
- Evans G.W., Palsane M.N., Carrere S. (1987). Type A behavior and occupational stress: a cross-cultural study of blue-collar workers. J Soc Psychol, 52, 1002-1007.
- Fairbank E.T., Richard L.H. (1979). Life event classification and the event-illness relationship. J Heal Soc Behav, 19, 41-47.
- Fank S.H., Zyzanski S.J. (1988). Stress in the clinical setting : The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J Fam Pract, 26, 533-539.
- Goldberg D.P., Hiller V.F. (1979). A scaled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 Med, 9, 139-145.
- Gove W., Tudor J.E. (1973). Adult sex and mental illness. Am J Sociol, 78, 50-73.
- Hobfoll (1988). Conservation of resources :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 Psychologist, 44, 513-524.
- Holmes T.H., Rahe R.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 Psychosom Res, 11, 213-218.
- House J.S. (1974). Occupational stress and coronary heart disease :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J Heal Soc Behav, 15, 12-27.
- House J.S., Wells J.A., Landerman L.R, et al. (1979).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 among factory workers. *J Heal Soc Behav*, 20, 139-160.
- Ilfeld F.W. (1978). Psychologic status of community residents along major demography dimensions. *Arch Gen Psychiat*, 35, 694-705.
- Ivanchevich J.M., Matterson M.T. (1980). *Stress and work : A managerial perspective*. Roresman and Company.
- Jemmott J.H., Sarason I.G. (1984). Psychosocial factors, immunologic mediation and human susceptibility to infectious diseases : How much do we know. *Psychol Bull*, 95(1), 78-108.
- Jekin C.D. (1971). Psychologic and social precursors of coronary heart disease. *N Engl J Med*, 284, 244-255.
- Kessler R.C., Essex M. (1981). Marital status and depression : the importance of coping resources. *Social Forces*, 10, 187-210.
- Kessler R.C., Neighbors H.W. (1987). A new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s among race, social cla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 Health Soc Behav*, 27, 107-115.
- Kornhauser A. (1965). *The mental health of the industrial worker*. New York.
- Lam T.H. (1987). Mental health and work stress : A comparison of response patterns in executives and clerical workers in Hong Kong. *J Occup Med*, 29, 892-897.
- Lam T.H. (1985). Mental health and work stress in office workers in Hong Kong. *J Occup Med*, 27, 199-205.
- Linn M.W. (1985). A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GARS) scale. *Int J Psychiatry Med*, 15(1), 47-59.
- Margolis, B.L., Kores, W.H., Quinn, R.P. (1974). Job stress : An unlisted occupational hazard. *J Occup Med*, 16, 659-661.
- Mattews, K.A., Cottington, E.M., Talbott, et al. (1987). Stressful work conditions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among blue collar factory workers. *Am J Epidemiol*, 126, 280-291.
- McGrath, J.E. (1979). *Social psychological factor in stress*. McGrath JE(Ed) New York.
- Neighbors, H.W. (1986).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logic distress in adult. *Am J Epidemiol*, 124(5), 779-793.
- Pakel, E.S., Myers, J.K. (1969). Life event and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21, 753-760.
- Pearlin, L.I., Menaghan, E.G., Ligerman, M.A., et al. (1981). *The stress process*. *J Heal Soc Behav*, 22, 337-356.
- Richard, W., Pell, R., Wallace, W. (1979). Tennessee survey for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sychol Today*, 13.
- Ross, C.E., Mirowsky, J. (1989). Explaining the social patterns of depression : control and problem solving-or support and talking. *J Heal Soc Behav*, 30, 206-219.
-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McGraw-Hill. New York.
- Sherbourne, C.D., Hays, R.d. (1990). Marital status, social support and health transition in chronic disease patients. *J Heal Soc Behav*, 31, 328-343.
- Spielberger, C.D. (1972). *Anxiety : Current trend in theory and research* vols. New York : Academic Press.
- Thoits, P.A. (1983). Dimensions of life events that influence psychological distress : An evaluation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Kaplan HB(Ed). New York : Academic press.
- Turner, R.J., Noh, S. (1988). Physical disability and depression : A longitudinal analysis. *J Heal Soc Behav*, 29, 23-37.

- Abstract -

Key concept : Newspaper employees, Stress,
Health Status

A Study on the Stress and the Health status of Newspaper Employees

*Kim, Jin-Hee**

This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status in a study group of 197 workers employed in four newspaper publishing companies, using a 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 The types of occupation of them were reporters(79), clerical workers(54), and engineers(64).

The studies on workers' health have been focused mainly on the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diseases in our country. Therefore, the study of mental health, especially of occupational stress, is to be carried out. I consider stress as a factor having an effect on the health status of the newspaper employees, who have been well known to have high stress due to time pressures.

I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not only for understanding of health status by occupation, but also for making clear th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continuously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ean values of stress by occup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porters had the highest stress symptom scores, and the engineers had the lowest levels of

stress. The mean values of stress symptoms were higher in the workers who had long working hours.

2. The health status by occup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astrointestinal systems and in depression. The clerical workers were healthier than the engineers in gastrointestinal systems, and the reporters were more depressed than the engineers in depression.
3. The health statu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as for a gender, marital status, and absenteeism in the gastrointestinal systems. The men, the married, and the workers who had not been absent were more healthy. Only absenteeism had an effect on the problems in optical-dermal systems and in oro-fecal systems. Gender, marital status, absenteeism, and working hours were related with health status : the men, the married, the workers who had not been absent, and the workers who had longer working hours were more healthy. In mental stability, gender had a significant effect : the men were more healthy than the women. In general condition, the men, the older, the married, and the workers who had not been absent were more healthy.
4. Stress level had an effect on the health status in the respiratory systems, optical-dermal systems, oro-fecal system, depression, mental stability, general condition, and health condition. The workers who perceived more stress had more problems in their health status.
5. In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ge in the respiratory systems, absenteeism in the optical-dermal systems, occupation and absenteeism in the gastrointestinal systems and in the

*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oro-fecal systems, gender in depression and in mental stability, gender, age, absenteeism, and working hours in the

general condition, absenteeism in the health condition had an effect on the health status of the workers.